

황금연휴 22만명 제주행...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

13~17일 황금연휴...골프장 대기표·렌터카 예약 100%

지난해 대비 2만명 많은 입도객...코로나19 방역 비상

8월 관광객 처음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전망

임시공휴일인 17일까지 이어진 광복절 연휴 동안 제주에 22만명이 넘는 내국인 관광객이 몰렸다.

사실상 해외 여행길이 막히면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늘었다.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 동안 일일 입도객 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평균 4000명 가량 증가했다.

골프장, 렌터카, 호텔 등 관광업계는 모처럼 바쁜 연휴 기간을 보냈다.

일부 업계에선 관광객이 몰리면서 예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5일간 황금연휴 22만명 제주 방문

17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임시공휴일인 이날까지 이어지는

닷새 동안의 '황금연휴'를 맞아 22만명이 제주를 찾았다.

일별로 13일 4만4402명, 14일 4만7288명, 15일 4만9078명, 16일 4만3315명을 비롯해 아직 통계가 집계되지 않은 17일에도 3만8000~9000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같은 기간 내국인 관광객 20만2308명이 제주를 찾은 것과 비교하면 약 2만명이 늘어난 수치다.

일 평균 4000명가량 증가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은 200명대에 머무르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95% 이상 감소한 수준을 유지했다.

제주에서는 지난 2월부터 관광객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다.

작년과 비교해 2월에 43.4%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3월 58.7%, 4월 58.2%, 5월 42%, 6월 33.9% 감소했다.



7월 통계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감소폭은 줄어들었어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업계에서는 8월에 월별 관광객 통계가 처음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만큼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골프장 대기표 받아야...렌터카·특급

호텔 등도 '빡' 찼다

연휴 기간 제주로 관광객이 몰리면서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29개 골프장도 붐볐다.

예약이 꽉 차 대기표를 받아야 하는 골프장이 30%를 넘었고, 나머지 골프장도 이전보다 손님이 10% 늘었다.

김민정 기자

코로나19에 7월 車 생산·수출 ↓...내수는 5개월 연속 ↑

신차 효과에 국산차 판매 9%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지난달 국내 자동차 생산과 수출이 모두 부진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내 자동차 산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생산은 전년 대비 3.8% 줄어든 34만5711대로 집계됐다.

업체별로 보면 현대와 기아는 각각 0.1%, 7.6% 감소한 16만3585대, 12만3795대를 생산했다. 쌍용과 르노삼성도 각각 29.8%, 17.7% 줄어든 7837대, 1만3856대를 만들어냈다.

반대로 한국지엠의 생산 대수는 3만 6363대로 9.5% 늘었다. 신차 트레일블레이저 판매 호조와 북미 지역 수출 확대 등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내수의 경우 전년 대비 8.9% 증가한 16만4539대가 팔리면서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국산차가 호조세를 보였는데 다양한 신차 출시와 업체별 특별할인 및 할부 혜택 등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한 14만 3038대가 팔렸다.

현대는 아반떼, 그랜저, G80, 쏘타페, 팰리세이드 등이 인기를 끌면서 28.4% 증가한 7만7811대를 팔았다. 한국지엠의 내수 판매도 3.5% 늘어난 6988대로 집계됐다.

반면 기아와 쌍용은 각각 0.1%, 23.0% 감소한 4만7050대, 6702대를 팔았다.

르노삼성의 내수 판매도 6301대로 24.2% 줄었다.

수입차 판매는 2만1501대로 0.7% 감소했다. 일본 수입차 판매가 크게 부진하면서 전년 대비 39.6% 줄었다.

업체별로는 نيسان(-100%, 재고 없음), 렉서스(-26.1%), 토요타(-21.8%) 등이다. 그레도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독일차 판매는 11.7% 늘었다.

국내 자동차 수출은 11.7% 감소한 18만 1362대로 집계됐다.

업체별로는 현대(-15.5%, 7만9738대), 기아(-7.8%, 7만300대), 르노삼성(-

65.3%, 2622대), 쌍용(-57.7%, 757대) 등 대부분 부진했다.

산업부는 북미 판매 증가세 전환과 유럽 시장 회복세 등으로 급감세가 완화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지역별로 보면 북미 수출액이 20억4900만 달러 20.1% 증가했다.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은 6.3% 줄어든 6억9300만 달러이다.

이외에 동유럽(2억3100만 달러, -20.1%), 중동(1억8400만 달러, -50.8%), 중남미(4900만 달러, -71.8%), 아프리카(4400만 달러, -49.2%), 오세아니아(2억 3800만 달러, -12.3%), 아시아(1억7000만 달러, -3.5%) 등 대부분 지역으로의 수출이 부진했다.

친환경차 수출은 전년 대비 12.5% 증가한 2만7468대로 집계됐다. 내수는 39.3% 늘어난 1만7360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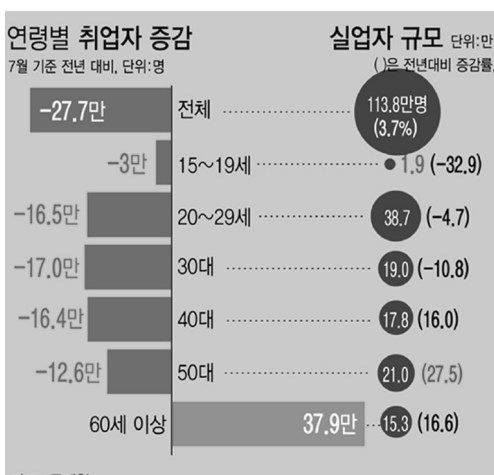
세부적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수출이 각각 1만2511대, 88대로 105.1%, 23.9% 늘었다. 현재 전기차는 36개월 연속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현지 완성차 회사의 생산량 조정과 신형시장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등으로 전년 대비 27.7% 감소한 14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서선욱 기자

“사장님이 그만 나오세요”...코로나에 일할 곳 없는 청년들

청년층 취업자 6개월째 줄어



황모(25·부산)씨는 “카페·레스토랑 등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곳마다 지원하고 있는데 면접을 보러 오라는 곳이 없어 막막하다”고 했다.

그는 중식 레스토랑에서 일하기 전 일식 집 면접에서도 최종 합격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음식점이 ‘일시 휴업’에 들어가면서 채용 취소를 당하기도 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고용 충격이 청년층(15~29세)에게 더욱 가혹한 듯하다. 지난 달 청년층 취업자 감소폭은 더욱 확대되고

채감실업률 또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고용률은 60대 이상보다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10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27만7000명(-1.0%) 쪼그라들었다. 감소폭은 지난 5월(-39만2000명), 6월(-35만2000명)에 이어 3개월 연속 축소됐습니다. 전체적인 고용 상황은 개선세를 보였지만, 미래 세대인 청년층의 고용난은 더욱 악화됐다.

청년층 취업자는 지난해 6월(-4000명) 이후 8개월 만인 지난 2월(-4만9000명)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이후 3월(-22만900명)과 4월(-24만5000명)에 감소폭이 확대됐다. 4월(-18만3000명)과 5월(-17만명)에는 회복 조짐을 보이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달 다시 19만5000명이나 줄면서 감소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청년층 고용률은 42.7%로 1년 전보다 1.4%포인트(p) 하락했다. 2015년 7월(42.1%)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심지어 60대 이상 고용률(43.8%)보다도 낮았다.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8%p 상승한 25.6%를 찍었다. 2015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동월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확장실업률은 취업자로 분류

되기는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아직 원서를 내지 않은 공무원시험 준비생 등을 포함해 집계됐다. 청년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지표로도 활용된다.

통계청은 코로나19로 음식점 등 대면 산업이 부진하면서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청년층은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취업으로 유입될 사람이 비경쟁활동인구에서 대기하면서 실업과 취업이 동시에 안 좋은 상태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부는 청년층 고용악화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청년 취업자 수, 고용률 등이 여전히 부진한 상태로 ‘우리 고용의 약한 고리의 하나가 청년고용’이라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시 청년들이 일직 지면에 따른 임금손실, 경력상실 등을 겪고 이후에도 임금과 취업기회가 낮아지는 ‘이력 효과’도 발생하고 있다”며 “청년고용에 대한 각별한 정책적 관심과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동휘재본부

‘월세시대’ 본격개막...세제·대출도 달라져야

정부 부동산 정책, 전세 지원에 초점...전환 필요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 시행 이후 임대차 시장의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조선시대 이후 가장 보편적인 임대차 방식이었던 전세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앞으로는 월세가 임대차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될 전망이다.

이에 그동안 전세에 초점을 맞춰 왔던 정부 정책이나 대출 제도 등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매매 수요가 늘어날 것을 고려해 저금리 장기 대출 상품 개발을 확대하고, 월세 지원 제도를 확충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월세, 목돈 마련 필요 없지만...매월 주거비 지출 ‘부담’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월세의 장 단점은 명확하게 나뉜다.

월세는 전세와 달리 수익원에 달하는 목돈 마련이 필요 없다.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임대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5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최소 몇 억은 가지고 있어야 전셋집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월세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적다.

대신 이 때문에 정부 정책도 전세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금융 운영을 통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맞춤형으로 최소 연 1.2% 저리 전세대출을 운영 중이다.

일부 월세지원 제도도 운영되지만, 주로 청년층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다. 만 34세 이하 연소득 2000만원 이하만 이용 가능한 ‘청년전용 버팀목대출’과 주거급여 수급자부터 취업준비생,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일반인까지 지원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등에 국한된다.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주택바우처’(임대료 보조지원)도 있지만, 서울시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32만원)에 대해 지원한다. 저소득층이 아니면 월세 지원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월세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선 유지 의무와 그 범위 내용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 위원은 “계약서상 특약사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원상복구 의무에 대한 분쟁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유나 기자

이윤주 제주도관광협회 골프장업분과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에 나가지 못하게 되면서 이번 연휴에 제주를 찾는 골프 인구가 늘었다. 도내 골프장 가운데 10곳 정도는 대기표를 받고 있다”며 “나머지 골프장도 가동률 6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연휴 동안 10% 정도 손님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렌터카 업체는 예약률이 100%에 이르면서 차가 없어서 대여를 못 하는 상황이다.

강동훈 제주도렌터카조합 이사장은 “이번 연휴 기간에는 전국적으로 렌터카 업체가 붐비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강원도 등에서도 차가 없어서 대여를 못 했다”고 전했다.

도내 특급호텔의 경우에도 예약률이 80%를 넘어섰다.

특히 연휴 기간에 예약자들이 몰리면서 이전과 달리 스위트룸 객실까지도 일정 부분 채워지고 있다.

도내 한 특급호텔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5% 정도는 모자란 수치지만 이번 연휴 동안 손님이 많이 몰렸다. 방역 활동을 위해 예약률을 80% 수준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